

출판 현장에서의 T_EX의 활용

이공계열 대학교재 출판을 중심으로

이주호*

2009년 2월 14일

*국회예산정책처, latex.juho@gmail.com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책 册 Book

책 冊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2. 안춘근 · 강희일

인간의 사상 · 감정 · 지식 · 사항 등을 일정한 목적 · 내용 · 체제에 맞추어 문자 · 글 · 그림 · 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여러 페이지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의 총칭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2. 안춘근 · 강희일

인간의 사상 · 감정 · 지식 · 사항 등을 일정한 목적 · 내용 · 체제에 맞추어 문자 · 글 · 그림 · 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여러 페이지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의 총칭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2. 안춘근 · 강희일

인간의 사상 · 감정 · 지식 · 사항 등을 일정한 목적 · 내용 · 체제에 맞추어 문자 · 글 · 그림 · 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여러 페이지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의 총칭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2. 안춘근 · 강희일

인간의 사상 · 감정 · 지식 · 사항 등을 일정한 목적 · 내용 · 체제에 맞추어 문자 · 글 · 그림 · 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여러 페이지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의 총칭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2. 안춘근 · 강희일

인간의 사상 · 감정 · 지식 · 사항 등을 일정한 목적 · 내용 · 체제에 맞추어 문자 · 글 · 그림 · 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여러 페이지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의 총칭

책 冊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2. 안춘근 · 강희일

인간의 사상 · 감정 · 지식 · 사항 등을 일정한 목적 · 내용 · 체제에 맞추어 문자 · 글 · 그림 · 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여러 페이지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의 총칭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앞부분 쪽번호: 로마숫자 소문자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앞부분 쪽번호: 로마숫자 소문자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본문/뒷부분 쪽번호: 아라비아숫자, 1로 갱신

```
\documentclass[twoside,b5paper,openright,11pt]{memoir} \mainmatter
\usepackage{amsmath} \chapter{이것은 첫 번째 장}
\usepackage[bookmarks=true]{hyperref} \section{이것은 첫 번째 장의 첫 절}
\usepackage{mathptmx} \subsection{이것은 첫 번째 장의 첫 소절}
\usepackage[hangulpagestyle, finemath, 본문이 위치한다.
microtype]{kotex} ...
... \chapter{이것은 두 번째 장}
...
\makeindex \backmatter
\allowdisplaybreaks \begin{thebibliography} ... \end{thebibliography}
\begin{document} \printindex
\frontmatter \end{document}
\tableofcontents
...
```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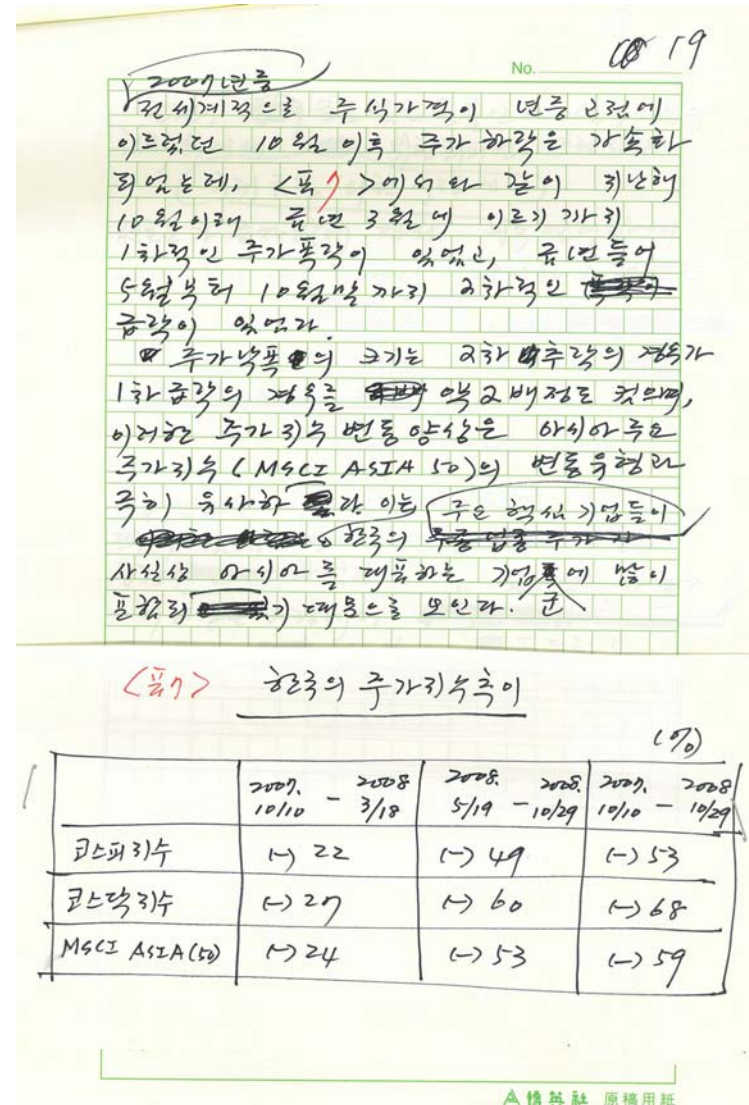
편집 vs. 제작

■ 원고 작성

- 원고지에 직접 쓰기
- 육성으로 녹음해오기
- 컴퓨터로 텍스트 직접 쳐 넣기

■ 편집(조판 및 레이아웃 구성)

■ 전자출판(pdf, html, dvi, ...)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t{T}_\text{E}\text{X}$ 의 단점

$\text{T}_\text{E}\text{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 $\text{T}_\text{E}\text{X}$ 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 $\text{T}_\text{E}\text{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1.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
2. GUI 방식이 아니어서 자신이 조판하고 있는 판면의 모양새를 바로 볼 수 없다.
3.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사용하기까지 알아야할 것이 너무 많다.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
2. GUI 방식이 아니어서 자신이 조판하고 있는 판면의 모양새를 바로 볼 수 없다.
3.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사용하기까지 알아야할 것이 너무 많다.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
2. GUI 방식이 아니어서 자신이 조판하고 있는 판면의 모양새를 바로 볼 수 없다.
3.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사용하기까지 알아야할 것이 너무 많다.

1.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
2. GUI 방식이 아니어서 자신이 조판하고 있는 판면의 모양새를 바로 볼 수 없다.
3.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사용하기까지 알아야할 것이 너무 많다.

과연 단점일까?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 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 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 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 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 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 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나중에 언급한 세 가지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나중에 언급한 세 가지 편집자와 저자의 수명을 늘리다.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나중에 언급한 세 가지 편집자와 저자의 수명을 늘리다.

네이피어 (John Napier)의 로그 (logarithm)가 천문학자의 수명을 늘렸다고 하듯이...

1. 합자(Ligature)
2. 문장부호 매달기 (Hanging Punctuation or Character Protrusion)
3. 글자 확장(Font Expansion)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t{T}_{\text{E}}\text{X}$ 의 단점

$\text{T}_{\text{E}}\text{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 $\text{T}_{\text{E}}\text{X}$ 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 $\text{T}_{\text{E}}\text{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합자(Ligature)
2. 문장부호 매달기 (Hanging Punctuation or Character Protrusion)
3. 글자 확장(Font Expansion)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t{T}_{\text{E}}\text{X}$ 의 단점

$\text{T}_{\text{E}}\text{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 $\text{T}_{\text{E}}\text{X}$ 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 $\text{T}_{\text{E}}\text{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합자(Ligature)
2. 문장부호 매달기 (Hanging Punctuation or Character Protrusion)
3. 글자 확장(Font Expansion)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t{T}_{\text{E}}\text{X}$ 의 단점

$\text{T}_{\text{E}}\text{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 $\text{T}_{\text{E}}\text{X}$ 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 $\text{T}_{\text{E}}\text{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매달린 문자 세트

매달린 문자 기능은 단락 경계선 상의 세밀한 제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좌우정렬된 텍스트에서 더 깔끔한 “가장자리”를 생성하기 위해, 단락 경계선 밖으로 인용 부호를 약간씩 밀어내어 “매달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용 부호는 텍스트 상자 밖에 놓이게 되더라도 지정한 규칙대로 정렬됩니다.

“This sentence has a hanging quotation mark at the end.”

맑은 물, 수려한 경관,
와 스릴을 즐길 수 있
수한 대지, 최고 봉인
원들의 지구촌이다.”

分けるとか、
プロジェクト
ができます。
次のよう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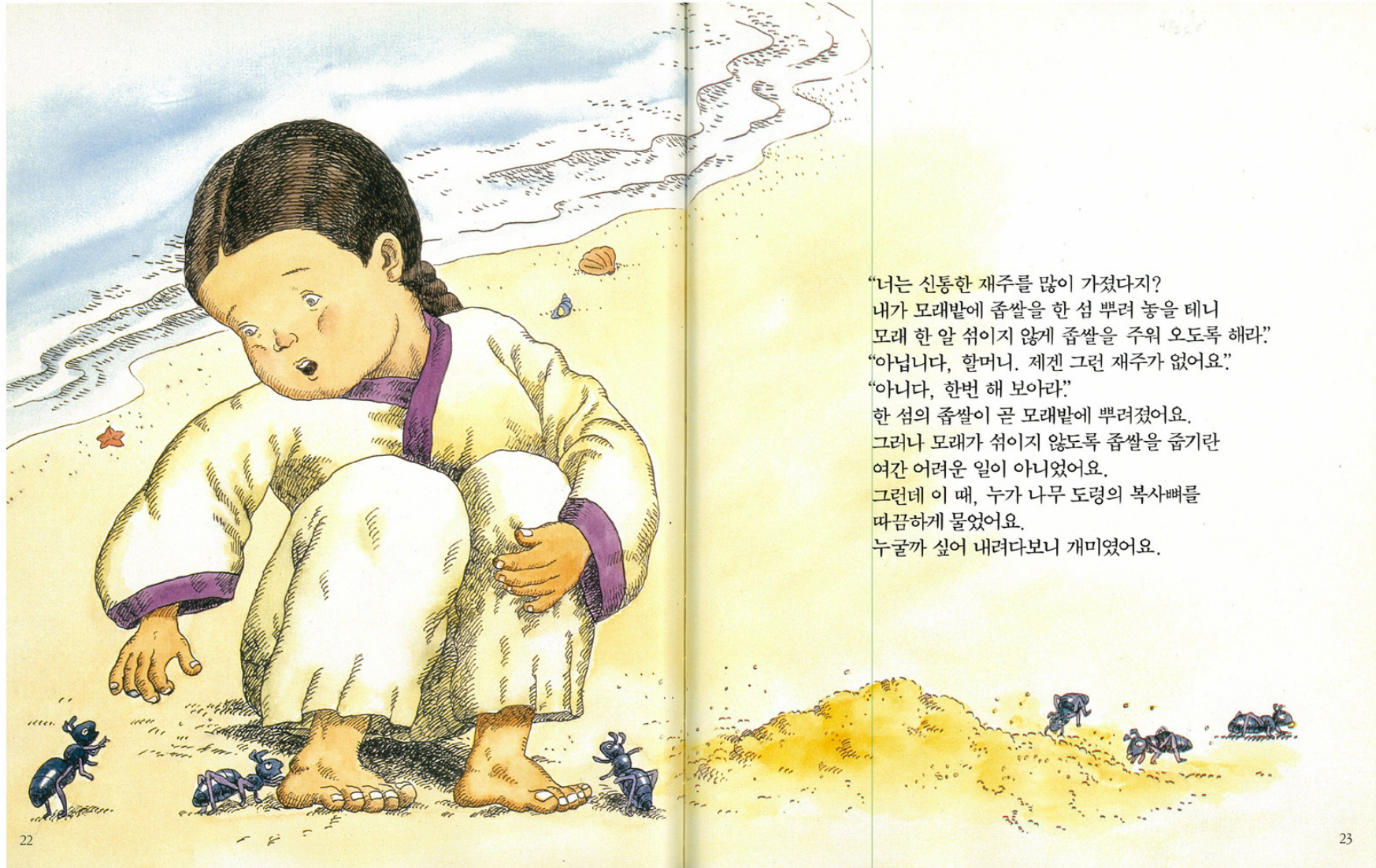
텍스트 경계선 밖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 “매달린 문자”에 대한 규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DF_TE_X 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분홍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소녀는 무안한지 안방에 숨어서, 무안하고, 나타나지 아니했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깃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깃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깃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깃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깃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깃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분홍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소녀는 무안한지 안방에 숨어서, 무안하고, 나타나지 아니했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깃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깃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깃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깃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깃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깃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깃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너는 신기한 재주를 많이 가졌는지?
내가 모래밭에 좁쌀을 한 섬 뿌려 놓을 테니
모래 한 알 섞이지 않게 좁쌀을 주워 오도록 해라.”
“아닙니다, 할머니. 제겐 그런 재주가 없어요.”
“아니다, 한번 해 보아라.”
한 섬의 좁쌀이 곧 모래밭에 뿌려졌어요.
그러나 모래가 섞이지 않도록 좁쌀을 줍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때, 누가 나무 도령의 복사뼈를
따끔하게 물었어요.
누굴까 싶어 내려다보니 재미었어요.

ADOBE ILLUSTRATOR CS2 의 리거처 (Ligature)

Arno Pro Regular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fjord fjord

Myriad Pro Regular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fjord fjord

Arno Pro Regular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fjord fjord

Myriad Pro Regular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fjord fjord

1. 수식이 미려하고 수식 폰트의 선택 폭이 다양
2. 고급조판 이론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3. 싱글 소싱 (Single source publishing) / 다양한 포맷 (various formats)
4. 수명 연장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t{T}_{\text{E}}\text{X}$ 의 단점

$\text{T}_{\text{E}}\text{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 $\text{T}_{\text{E}}\text{X}$ 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₃ $\text{T}_{\text{E}}\text{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 2 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중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종류	판형 (가로×세로)	판면 (가로×세로)
신국판	152×224mm	105×170mm
크라운판	174×251mm	120×195mm
4*6배판	190×260mm	135×210mm
국배판 (A4)	210×297mm	150×240mm

- 윌리엄 모리스 안-위-바깥-아래 = $1 : 1.2 : 1.2^2 : 1.2^3$
- 스탠리 언윈 안-위-바깥-아래 = $1.5 : 2 : 3 : 4$
- 황금비 안-위-바깥-아래 = $0.618 : 1 : 1 : 1.618 = 3 : 5 : 5 : 8$

판형 및 판면 결정

종류	판형 (가로×세로)	판면 (가로×세로)
신국판	152×224mm	105×170mm
크라운판	174×251mm	120×195mm
4*6배판	190×260mm	135×210mm
국배판 (A4)	210×297mm	150×240mm

- 윌리엄 모리스 안-위-바깥-아래 = $1 : 1.2 : 1.2^2 : 1.2^3$
- 스탠리 언윈 안-위-바깥-아래 = $1.5 : 2 : 3 : 4$
- 황금비 안-위-바깥-아래 = $0.618 : 1 : 1 : 1.618 = 3 : 5 : 5 : 8$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중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종류	판형 (가로×세로)	판면 (가로×세로)
신국판	152×224mm	105×170mm
크라운판	174×251mm	120×195mm
4*6배판	190×260mm	135×210mm
국배판 (A4)	210×297mm	150×240mm

- 윌리엄 모리스 안-위-바깥-아래 = $1 : 1.2 : 1.2^2 : 1.2^3$
- 스탠리 언윈 안-위-바깥-아래 = $1.5 : 2 : 3 : 4$
- 황금비 안-위-바깥-아래 = $0.618 : 1 : 1 : 1.618 = 3 : 5 : 5 : 8$

이종운이 추천한 방법

1. 위와 아래의 여백을 같게 (면주 제외한 본문만)
2. 안 여백은 바깥 여백의 $\frac{1}{2}$ (바깥쪽 여백의 10%를 더 안여백에 부여)
3. 바깥과 아래 여백은 '거의 같은' 나비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원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 2 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이종운이 추천한 방법

1. 위와 아래의 여백을 같게 (면주 제외한 본문만)
2. 안 여백은 바깥 여백의 $\frac{1}{2}$ (바깥쪽 여백의 10%를 더 안여백에 부여)
3. 바깥과 아래 여백은 '거의 같은' 나비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원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 2 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이종운이 추천한 방법

1. 위와 아래의 여백을 같게 (면주 제외한 본문만)
2. 안 여백은 바깥 여백의 $\frac{1}{2}$ (바깥쪽 여백의 10%를 더 안여백에 부여)
3. 바깥과 아래 여백은 '거의 같은' 나비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 2 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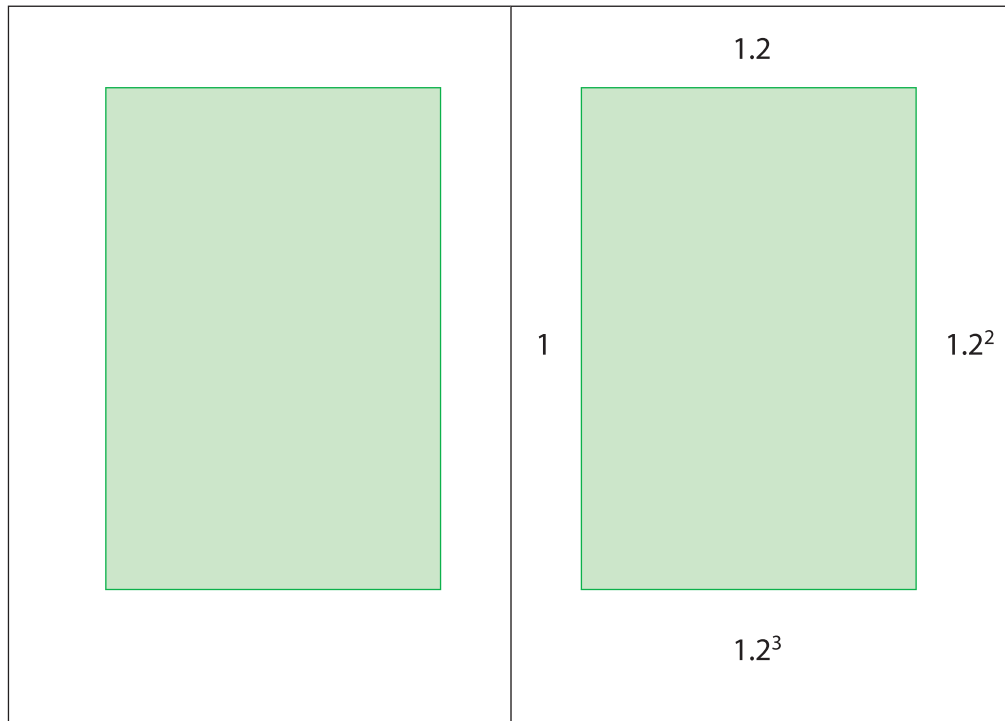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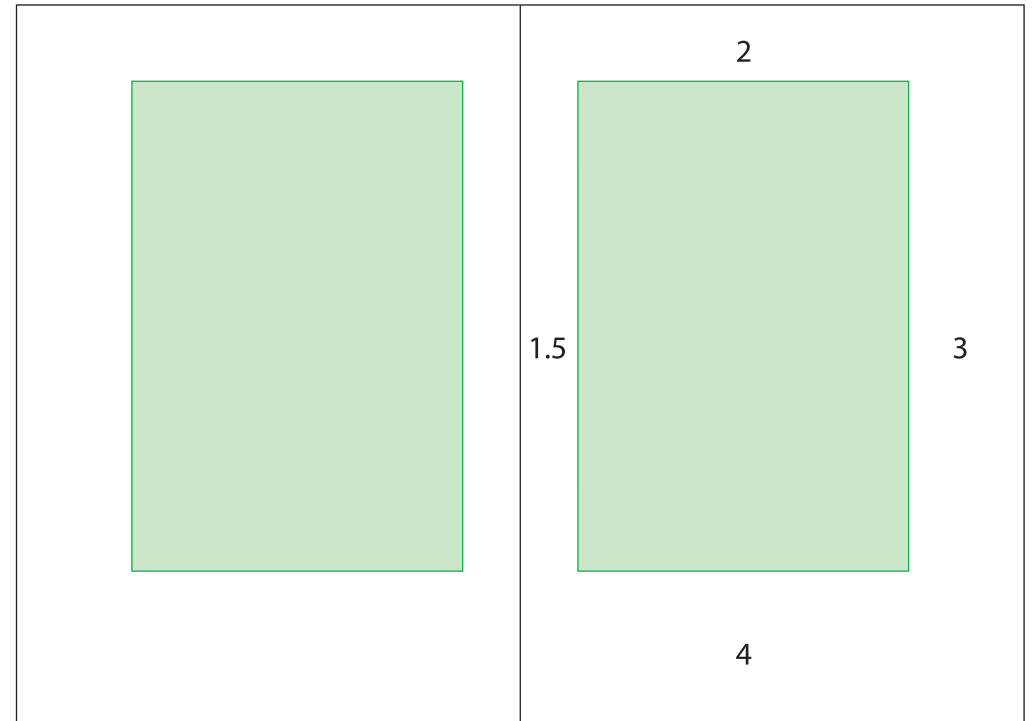
수식 편집

당부 말씀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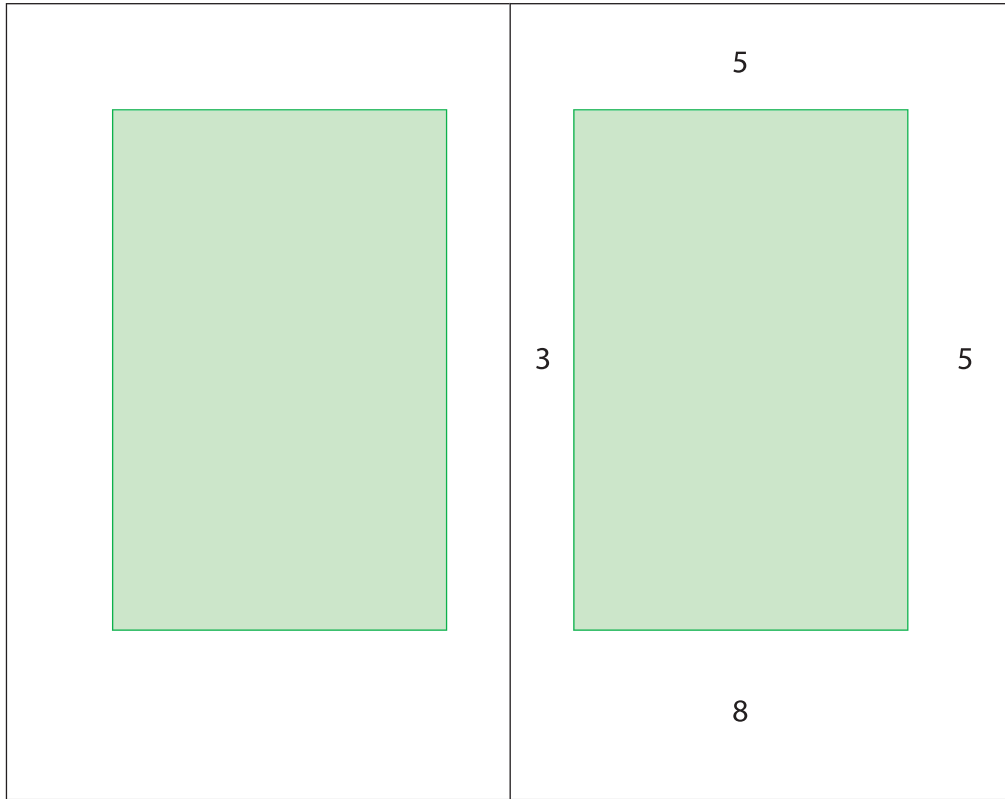


모리스 (William Mor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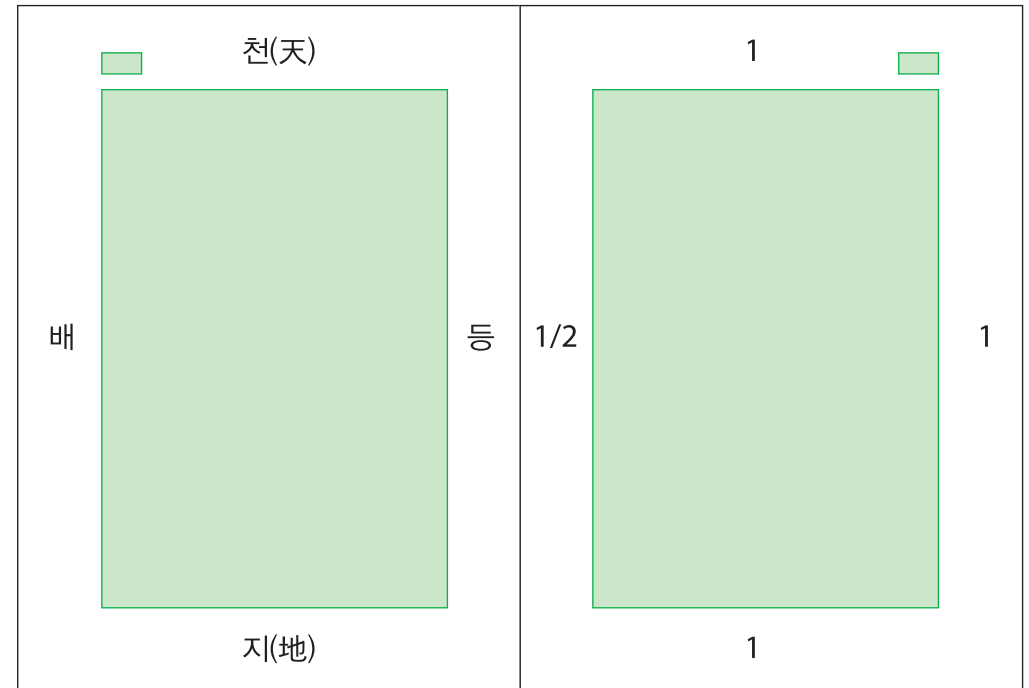


언윈 (Sir Stanley Unwin)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황금비 (Golden Section)



이종운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 2 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판면 설정에 대해서는 이 geometry 패키지 하나만 기억하자!

```
\usepackage{geometry}
```

```
...
```

```
\geometry{%
paperwidth=152mm,
paperheight=224mm,
textwidth=105mm,
textheight=170mm,
centering }
```

10

1 소녀

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흥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울창한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손을 따져 가며 동네외까지 할 절척(切戚)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패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뵈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 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웃고음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너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짐심 대접하라고 말에게 일었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 소박이와 호박는뽕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깨끗했다. 소녀는 혼자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활짝한 인사를 날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듯저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그때가 약간 문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소녀 11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린수린하는 기척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로 들렸다. 웬말이라고 열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손에서는 별식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매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울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했니, 애도 새롭거든.”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를 때 뒤를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2 소녀

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흥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울창한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손을 따져 가며 동네외까지 할 절척(切戚)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패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뵈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

```
\usepackage{geometry}
...
\geometry{
paperwidth=174mm,
paperheight=251mm,
textwidth=120mm,
textheight=195mm,
centering }
```

10	11
<p>1 소녀</p> <p>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긴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흥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아드막한 산 밑에 음양종양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별 되는 분의 집이다.</p> <p>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별 되는 소나가 있었다. 실상 손수를 따져 가며 동네의까지 할 절척(切戚)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나를 오후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나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풀이 박하여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사골서 좀 벌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필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패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뵈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쑥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나를 불러 냈다.</p> <p>소나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웃고똘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너방에서 옮겨 간 것이 들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 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말에게 일었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러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는뽕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끔했다. 소나는 종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활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왔다.</p> <p>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듯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관매가 약간 묻은 소나의 분홍 적삼이.</p> <p>나는 아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련수련 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로 들었다. 쾅쾅하고 열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손에서는 밀식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니스래를 놓다니, 슬쩍 적삼을 매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p> <p>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나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나를 불렀다. 그러나 소나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했니, 예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나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훑듯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나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p>	<p>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p> <p>2 소녀</p> <p>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긴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흥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아드막한 산 밑에 음양종양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별 되는 분의 집이다.</p> <p>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별 되는 소나가 있었다. 실상 손수를 따져 가며 동네의까지 할 절척(切戚)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나를 오후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나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풀이 박하여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사골서 좀 벌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필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패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뵈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쑥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나를 불러 냈다.</p> <p>소나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웃고똘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너방에서 옮겨 간 것이 들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 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말에게 일었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러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는뽕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끔했다. 소나는 종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활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왔다.</p> <p>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듯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관매가 약간 묻은 소나의 분홍 적삼이.</p> <p>나는 아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련수련 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로 들었다. 쾅쾅하고 열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손에서는 밀식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니스래를 놓다니, 슬쩍 적삼을 매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p> <p>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나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나를 불렀다. 그러나 소나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했니,</p>

```
\usepackage{geometry}
...
\geometry{%
paperwidth=190mm,
paperheight=260mm,
textwidth=135mm,
textheight=210mm,
centering }
```

10
<p>1 소녀</p> <p>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이 마음이 흥거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아늑막한 산 밑에 송망출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길이 내 전외가로 아저씨별 되는 분의 집이다.</p> <p>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리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별 되는 소나가 있었다. 실상 손수를 따져 가면 동내외까지 할 절취(切戚)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나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나의 몸매머 옷매무새는 제법 책시들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벌겍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치너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패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뵈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짐 싣 대침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마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똥히 치워져 있고, 차리도 갈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나를 불러 냈다.</p> <p>소나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침으로 아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상숙해 보였다. 저금 막 건너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짐 싣 대침하라고 말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말은 노파에게 상을 둘러 가지고 왔다. 닭죽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은엿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끔했다. 소나는 혼자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권속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겸박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p> <p>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듯자리 같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볼품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곧매가 약간 문은 소나의 볼품 적삼이.</p> <p>나는 아뭏튼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린수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꿇앉다고 열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손에서는 별색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니스래를 놓더니, 순벽 적삼을 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p> <p>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나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삼 들린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나를 불렀다. 그러나 소나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예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나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를 때 뒤를 훌쩍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려보는 소나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p>
<p>2 소녀</p> <p>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이 마음이 흥거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아늑막한 산 밑에 송망출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길이 내 전외가로 아저씨별 되는 분의 집이다.</p>

소녀 11
<p>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리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별 되는 소나가 있었다. 실상 손수를 따져 가면 동내외까지 할 절취(切戚)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나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나의 몸매머 옷매무새는 제법 책시들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벌겍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치너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패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뵈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짐 싣 대침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마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똥히 치워져 있고, 차리도 갈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나를 불러 냈다.</p> <p>소나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침으로 아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상숙해 보였다. 저금 막 건너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짐 싣 대침하라고 말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말은 노파에게 상을 둘러 가지고 왔다. 닭죽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은엿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끔했다. 소나는 혼자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권속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겸박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p> <p>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듯자리 같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볼품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곧매가 약간 문은 소나의 볼품 적삼이.</p> <p>나는 아뭏튼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린수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꿇앉다고 열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손에서는 별색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니스래를 놓더니, 순벽 적삼을 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p> <p>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나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삼 들린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나를 불렀다. 그러나 소나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예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나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를 때 뒤를 훌쩍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려보는 소나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p>
<p>3 소녀</p> <p>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이 마음이 흥거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아늑막한 산 밑에 송망출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길이 내 전외가로 아저씨별 되는 분의 집이다.</p> <p>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리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별 되는 소나가 있었다. 실상 손수를 따져 가면 동내외까지 할 절취(切戚)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나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나의 몸매머 옷매무새는 제법 책시들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벌겍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치너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패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뵈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짐 싣 대침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마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똥히 치워져 있고, 차리도 갈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나를 불러 냈다.</p>

4*6 배판 변2단

```
\usepackage{geometry}
...
\geometry{%
paperwidth=190mm,
paperheight=260mm,
textwidth=100mm,
textheight=210mm,
marginparwidth=35mm,
marginparsep=5mm, }
```

	10
마진에 텍스트를 넣는다.	<p>1 소녀</p> <p>고개 마무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흥분해진다. 이 마무턱에서 보면 아득막한 산 밑에 울창할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전외가로 아저씨별 되는 분의 집이다.</p> <p>나는 여똥 뱀학이 되어 집에 내리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손수를 따지 가며 중내외까지 할 절척(切戚)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스라, 내가 가면 약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후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세시들이 반하여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빈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살만 되면 벌써 치니로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읍시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패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뵈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짐실 내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마술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뿔이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후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 냈다.</p> <p>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웃고똘을 매만지며 대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저금 막 건너방에서 술자 간 것이 들림 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후 짐실 내집하라고 말에 걸었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러 가지고 왔다. 닭국에 딸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논험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끔했다. 소녀는 혼자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인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열박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p> <p>남창으로 똘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뜻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문패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p> <p>나는 아뜻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린수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고 열리 말하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혼자서는 벌칙이니 맛 없이도 많이 먹으려나니 니스레든 놓더니, 슬쩍 적삼을 때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p> <p>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삼 들린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후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p>

	소녀 11
마진에 텍스트를 넣는다.	<p>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했니, 애도 생똥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훑듯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p> <p>2 소녀</p> <p>고개 마무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흥분해진다. 이 마무턱에서 보면 아득막한 산 밑에 울창할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전외가로 아저씨별 되는 분의 집이다.</p> <p>나는 여똥 뱀학이 되어 집에 내리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손수를 따지 가며 중내외까지 할 절척(切戚)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스라, 내가 가면 약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후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세시들이 반하여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빈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살만 되면 벌써 치니로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읍시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패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뵈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짐실 내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마술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뿔이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후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 냈다.</p> <p>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웃고똘을 매만지며 대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저금 막 건너방에서 술자 간 것이 들림 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후 짐실 내집하라고 말에 걸었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러 가지고 왔다. 닭국에 딸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논험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끔했다. 소녀는 혼자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인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열박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p> <p>남창으로 똘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뜻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문패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p> <p>나는 아뜻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린수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고 열리 말하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p>

```

\documentclass[twoside,showtrims,
a4paper]{xoblivoir}
...
\settrimmedsize{260mm}{190mm}{*}
\settypeblocksize{210mm}{135mm}{*}
\setlrmargins{*}{*}{1.0}
\setulmargins{*}{*}{1.0}
%판면을 용지 중앙에 위치
\setlength\trimtop{\stockheight}
\addtolength\trimtop{-\paperheight}
\setlength\trimedge{\stockwidth}
\addtolength\trimedge{-\paperwidth}
\settrims{.5\trimtop}{.5\trimedge}
%
\checkandfixthelayout
    
```

1 소녀

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해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흥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아드막한 산 밑에 울창할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길이 내 전희가도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어릴 땐 방학이 되어 집에 내리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손수를 따져 가며 동네회까지 할 절척(切戚)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이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오래 그 소녀를 오페라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책자들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시문서 좀 보낼 정도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치니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칠살이나 육살 속에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짐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썩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보고 수인사 경 이런 이야기 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할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짐실 대상을 하라는 것이다. 사랑방은 미숙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로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페라에 나와 인사하려고 소녀를 불러 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같이 입고 머리도 함께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아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저문 밖 건너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페라 짐실 대청이라고 말하게 있었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러 가지고 왔다. 닭죽에 딸은 밀국수다. 오이스박이와 호박은 찹쌀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끔했다. 소녀는 손이더 번번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담고도 신속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활발한 인사를 남기고 곧게 문을 닫고 나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 못지않게 겁이 났다. 소녀의 볼품은 좋았지만,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볼품 짐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문패가 약간 붉은 소녀의 볼품 짐삼이.

나는 아랫면 호기심으로 저구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란수란하는 기척이 들렸다. 노파의 손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웬참다고 열리 말하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손에서는 별치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니스레를 놓더니, 슬쩍 짐삼을 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짐삼 들린 것이 부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페라 떠났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하니, 예도 재롱기는.” 하며 미안한 듯 미웃미웃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를 때 뒤를 흘깃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2 소녀

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해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흥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아드막한 산 밑에 울창할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길이 내 전희가도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어릴 땐 방학이 되어 집에 내리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손수를 따져 가며 동네회까지 할 절척(切戚)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이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오래 그 소녀를 오페라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책자들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시문서 좀 보낼 정도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치니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칠살이나 육살 속에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짐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썩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보고 수인사 경 이런 이야기 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할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짐실 대상을 하라는 것이다. 사랑방은 미숙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로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페라에 나와 인사하려고 소녀를 불러 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같이 입고 머리도 함께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아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저문 밖 건너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페라 짐실 대청이라고 말하게 있었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러 가지고 왔다. 닭죽에 딸은 밀국수다. 오이스박이와 호박은 찹쌀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끔했다. 소녀는 손이더 번번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담고도 신속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활발한 인사를 남기고 곧게 문을 닫고 나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 못지않게 겁이 났다. 문패가 약간 붉은 소녀의 볼품 짐삼이.

나는 아랫면 호기심으로 저구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란수란하는 기척이 들렸다. 노파의 손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웬참다고 열리 말하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손에서는 별치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니스레를 놓더니, 슬쩍 짐삼을 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짐삼 들린 것이 부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페라 떠났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하니, 예도 재롱기는.” 하며 미안한 듯 미웃미웃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를 때 뒤를 흘깃 훑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3 소녀

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해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흥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아드막한 산 밑에 울창할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길이 내 전희가도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어릴 땐 방학이 되어 집에 내리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손수를 따져 가며 동네회까지 할 절척(切戚)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이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오래 그 소녀를 오페라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책자들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시문서 좀 보낼 정도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치니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칠살이나

- 판면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나눈 일정한 구역
- 얀 치홀트 (Jan Tschichold), 르 코르뷔지에 (Le Corbusier), 빌라르 드 온쿠르 (Villard de Honnecourt)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 2 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판면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나눈 일정한 구역
- 얀 치홀트 (Jan Tschichold), 르 코르뷔지에 (Le Corbusier), 빌라르 드 온쿠르 (Villard de Honnecourt)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 2 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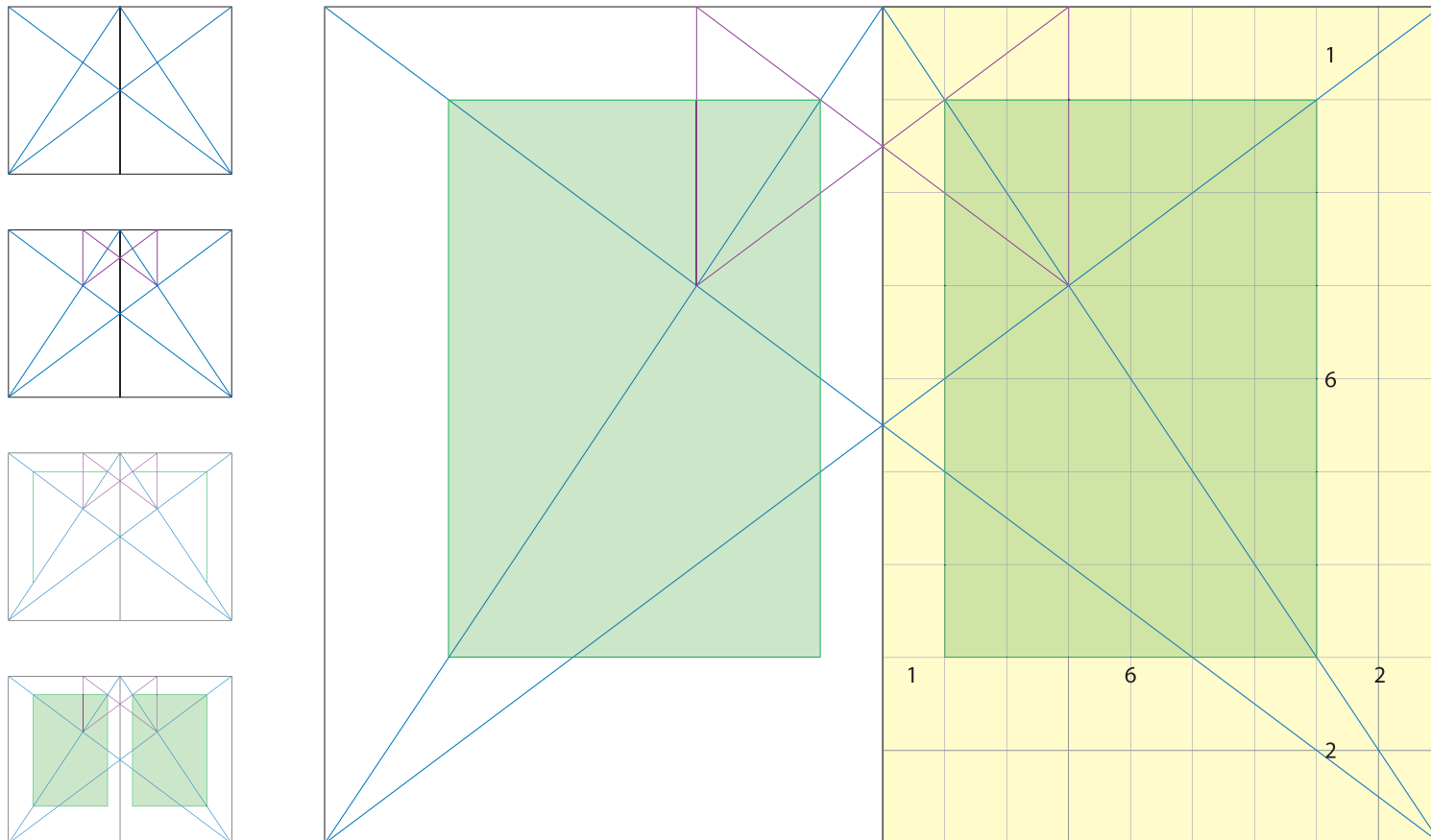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판면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나눈 일정한 구역
- 얀 치홀트 (Jan Tschichold), 르 코르뷔지에 (Le Corbusier), 빌라르 드 온쿠르 (Villard de Honnecourt)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중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 2 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본문용 글꼴 선호도 조사(김창수/ 정용욱)

김창수	비율 (%)	정용욱	비율 (%)
윤명조	32.2	윤명조 100	24.1
SM신명조	12.4	윤고딕 100	21.3
윤고딕	10.7	SM신명조	8.6
산돌명조	8.3	SM신신명조	6.3
#신명조	5.0	산돌명조	4.6
HY신명조	3.3	윤고딕 300, 산돌고딕	3.4
SM신신명조, 바탕, 굴림	2.1	윤명조 200	2.9
		돋움	2.3
신명조, 휴먼명조, HY중고딕, #중고딕	1.7	HY중고딕	1.7

■ $\text{T}_{\text{E}}\text{X}$ 에서도 ttf 사용 가능: DVIPDFM x , TTF2HLATEXFONT (후에 TTF2KOTEXFONT), Xe $\text{T}_{\text{E}}\text{X}$

■ 본문에 어울리는 글꼴 (font) 선택: 많은 경험이 필요한 대목

■ 본문용 글꼴 선호도 조사(김창수/ 정용욱)

김창수	비율 (%)	정용욱	비율 (%)
윤명조	32.2	윤명조 100	24.1
SM신명조	12.4	윤고딕 100	21.3
윤고딕	10.7	SM신명조	8.6
산돌명조	8.3	SM신신명조	6.3
#신명조	5.0	산돌명조	4.6
HY신명조	3.3	윤고딕 300, 산돌고딕	3.4
SM신신명조, 바탕, 굴림	2.1	윤명조 200	2.9
		돋움	2.3
신명조, 휴먼명조, HY중고딕, #중고딕	1.7	HY중고딕	1.7

■ \TeX 에서도 ttf 사용 가능: DVIPDFM x , TTF2HLATEXFONT (후에 TTF2KOTEXFONT), Xe \TeX

■ 본문에 어울리는 글꼴 (font) 선택: 많은 경험이 필요한 대목

■ 본문용 글꼴 선호도 조사(김창수/ 정용욱)

김창수	비율 (%)	정용욱	비율 (%)
윤명조	32.2	윤명조 100	24.1
SM신명조	12.4	윤고딕 100	21.3
윤고딕	10.7	SM신명조	8.6
산돌명조	8.3	SM신신명조	6.3
#신명조	5.0	산돌명조	4.6
HY신명조	3.3	윤고딕 300, 산돌고딕	3.4
SM신신명조, 바탕, 굴림	2.1	윤명조 200	2.9
		돋움	2.3
신명조, 휴먼명조, HY중고딕, #중고딕	1.7	HY중고딕	1.7

■ $\text{T}_{\text{E}}\text{X}$ 에서도 ttf 사용 가능: DVIPDFM x , TTF2HLATEXFONT (후에 TTF2KOTEXFONT), X _ TEX

■ 본문에 어울리는 글꼴 (font) 선택: 많은 경험이 필요한 대목

■ 본문용 글꼴 선호도 조사(김창수/ 정용욱)

김창수	비율 (%)	정용욱	비율 (%)
윤명조	32.2	윤명조 100	24.1
SM신명조	12.4	윤고딕 100	21.3
윤고딕	10.7	SM신명조	8.6
산돌명조	8.3	SM신신명조	6.3
#신명조	5.0	산돌명조	4.6
HY신명조	3.3	윤고딕 300, 산돌고딕	3.4
SM신신명조, 바탕, 굴림	2.1	윤명조 200	2.9
		돋움	2.3
신명조, 휴먼명조, HY중고딕, #중고딕	1.7	HY중고딕	1.7

■ $\text{T}_{\text{E}}\text{X}$ 에서도 ttf 사용 가능: DVIPDFMx, TTF2HLATEXFONT (후에 TTF2KOTEXFONT), Xe₃TeX

■ 본문에 어울리는 글꼴 (font) 선택: 많은 경험이 필요한 대목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원의 판면

황금비와 이중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 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fontsize{10pt}{16pt} \selectfont
\setlength\baselineskip{14pt}
% 이 명령을 직접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renewcommand{\baselinestretch}{1.5}
\linespread{1.0} % \selectfont
% 본문 중간에 이 명령을 내릴 때 \selectfont를 같이 써준다.
\linespread{1.333} % ko.TeX의 기본값
\linespread{1.5}
```


- 커닝 (kerning): 영문에서 이웃한 한쌍의 글자가 만나는 간격 정보

커닝이 적용되었을 때		AVIATION	Toyota	Valley	World
커닝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AVIATION	Toyota	Valley	World

- 자간

```
\usepackage{dhucs-interword} \interhchar{Opt}
```

- 어간

```
\usepackage{dhucs-interword} \interhword[.6] {.475} {.1} {.1}
```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Tip 1. `\allowdisplaybreaks`
- Tip 2. 수직정렬 위치 구분자
&
- Tip 3. 별행 수식의 줄바꿈
위치

당부 말씀

수식 편집

복소수를 가르쳤다. 그의 기초 대수학 교재인 《대수학 원론》(*Elements of Algebra*)에 보면 교재의 거의 맨 앞부분부터 복소수를 도입하고 있고 교재 전체를 통틀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3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증명

테일러 급수에 따라 실수 범위에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e^x = 1 + x + \frac{x^2}{2!} + \frac{x^3}{3!} + \dots = \sum_{n=0}^{\infty} \frac{x^n}{n!}$$

$$\cos x = 1 - \frac{x^2}{2!} + \frac{x^4}{4!} - \frac{x^6}{6!} + \dots = \sum_{n=0}^{\infty} \frac{(-1)^n}{(2n)!} x^{2n}$$

$$\sin x = x - \frac{x^3}{3!} + \frac{x^5}{5!} - \frac{x^7}{7!} + \dots = \sum_{n=0}^{\infty} \frac{(-1)^n}{(2n+1)!} x^{2n+1}$$

이때 x 가 복소수일 때에 앞의 무한급수를 각각의 함수로 정의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frac{(iz)^7}{7!} + \frac{(iz)^8}{8!} + \dots$$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dots$$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dots \right) + i \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dots \right)$$

$$= \cos z + i \sin z$$

복소수를 가르쳤다. 그의 기초 대수학 교재인 《대수학 원론》(*Elements of Algebra*)에 보면 교재의 거의 맨 앞부분부터 복소수를 도입하고 있고 교재 전체를 통틀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3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증명

테일러 급수에 따라 실수 범위에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e^x = 1 + x + \frac{x^2}{2!} + \frac{x^3}{3!} + \dots = \sum_{n=0}^{\infty} \frac{x^n}{n!}$$

$$\cos x = 1 - \frac{x^2}{2!} + \frac{x^4}{4!} - \frac{x^6}{6!} + \dots = \sum_{n=0}^{\infty} \frac{(-1)^n}{(2n)!} x^{2n}$$

$$\sin x = x - \frac{x^3}{3!} + \frac{x^5}{5!} - \frac{x^7}{7!} + \dots = \sum_{n=0}^{\infty} \frac{(-1)^n}{(2n+1)!} x^{2n+1}$$

이때 x 가 복소수일 때에 앞의 무한급수를 각각의 함수로 정의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frac{(iz)^7}{7!} + \frac{(iz)^8}{8!} + \dots$$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dots$$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dots \right) + i \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dots \right)$$

$$= \cos z + i \sin z$$

Tip 2. 수직정렬 위치 구분자 &

```
\begin{align} \overline{g}(\mathcal{A}(X,Y),V) &= \overline{g}(\text{nor } \overline{\nabla}_X Y, V) \\ &= \frac{1}{r} \overline{g}(\overline{\nabla}_X Y, P) \end{align}
```

$$\overline{g}(\mathcal{A}(X, Y), V) = \overline{g}(\text{nor } \overline{\nabla}_X Y, V) \quad (1)$$

$$= \frac{1}{r} \overline{g}(\overline{\nabla}_X Y, P) \quad (2)$$

```
\begin{align} \overline{g}(\mathcal{A}(X,Y),V) &= \overline{g}(\text{nor } \overline{\nabla}_X Y, V) \\ &= \frac{1}{r} \overline{g}(\overline{\nabla}_X Y, P) \end{align}
```

$$\overline{g}(\mathcal{A}(X, Y), V) = \overline{g}(\text{nor } \overline{\nabla}_X Y, V) \quad (3)$$

$$= \frac{1}{r} \overline{g}(\overline{\nabla}_X Y, P) \quad (4)$$

Tip 3. 별행 수식의 줄바꿈 위치

- 관계 기호 또는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을 한다. 행장의 끝부분에 남겨두고 자르지 않는다. 단 행중 수식(in-line math)일 경우는 예외이다.
-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한 수식은, 연산 기호가 윗줄의 관계 기호 ‘오른쪽’에 있는 첫 문자에 맞춘다.

$$\begin{aligned}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quad + \frac{(iz)^7}{7!} + \frac{(iz)^8}{8!} + \dots \\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dots \\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dots \right) \\ &\quad + i \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dots \right) \\ &= \cos z + i \sin z \end{aligned}$$

Tip 3. 별행 수식의 줄바꿈 위치

- 관계 기호 또는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을 한다. 행장의 끝부분에 남겨두고 자르지 않는다. 단 행중 수식(in-line math)일 경우는 예외이다.
-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한 수식은, 연산 기호가 윗줄의 관계 기호 ‘오른쪽’에 있는 첫 문자에 맞춘다.

$$\begin{aligned}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quad + \frac{(iz)^7}{7!} + \frac{(iz)^8}{8!} + \dots \\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dots \\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dots \right) \\ &\quad + i \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dots \right) \\ &= \cos z + i \sin z \end{aligned}$$

Tip 3. 별행 수식의 줄바꿈 위치

- 관계 기호 또는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을 한다. 행장의 끝부분에 남겨두고 자르지 않는다. 단 행중 수식(in-line math)일 경우는 예외이다.
-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한 수식은, 연산 기호가 윗줄의 관계 기호 ‘오른쪽’에 있는 첫 문자에 맞춘다.

$$\begin{aligned}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quad + \frac{(iz)^7}{7!} + \frac{(iz)^8}{8!} + \dots \\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dots \\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dots \right) \\ &\quad + i \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dots \right) \\ &= \cos z + i \sin z \end{aligned}$$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당부 말씀

당부 말씀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당부 말씀

- 편집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본문 레이아웃 때문에 끄끙 앓지 마세요.
- 牛步萬里.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 KTUG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을 달아보세요.
- Be the $\text{T}_\text{E}\text{X}$ nician!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당부 말씀

- 편집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본문 레이아웃 때문에 끄끙 앓지 마세요.
- 牛步萬里.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 KTUG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을 달아보세요.
- Be the $\text{T}_\text{E}\text{X}$ nician!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당부 말씀

- 편집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본문 레이아웃 때문에 끄끖 앓지 마세요.
- 牛步萬里.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 KTUG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을 달아보세요.
- Be the $\text{T}_\text{E}\text{X}$ nician!

책 冊 Book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당부 말씀

- 편집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본문 레이아웃 때문에 끄끙 앓지 마세요.
- 牛步萬里.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 KTUG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을 달아보세요.
- Be the $\text{T}_\text{E}\text{X}$ nician!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t{T}_\text{E}\text{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t{T}_\text{E}\text{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당부 말씀

감사합니다!